

〈셋태비감〉의 한국전쟁 체험과 여성 피란민의 시선

이혜경*

- I. 들어가며
- II. <셋태비감>을 통해 본 화자의 시각
- III. 한국전쟁의 특수성과 <셋태비감>의 문학사적 의의
- IV. 나가며

<국문초록>

<셋태비감>은 작자미상의 여성이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의 입장에서 경험한 전란의 상황과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4음보 가사체 양식으로 표현한 필사본 가사 작품이다. 본고는 현장과 밀착된 작자의 삶과 의식을 구체적으로 살펴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가사의 문학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본고는 작품 소개 이외에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었던 <셋태비감>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작품의 내용을 3단락으로 정리하여 작품론으로 들어갔다. 작품의 도입부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의 발발,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전까지 당시 현실세계가 충실히 재현된 객관적 서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공식적인 역사서술에 의존한 리얼리티의 복원이 가능했다. 가운데 단락에서는 전쟁 중 부역 행위로 옥살이를 하게 된 화자의 억울한 심정과 비참함의 정서를 확인하고 그가 투옥하는 동안 꿈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나마 자신의 고난을 잊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을 살폈다. 그리고 1년의 옥살이 끝에 출소하여 막막한 현실 속에서 미래를 기원하는 화자의 목소리로 작품은 끝을 맺는다.

<셋태비감>은 작자의 전쟁 체험에서 비롯된 역사적 사실과 개인의 시련을

* 계명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강사

극복하기 위한 현실도피를 문학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논픽션과 픽션이 혼종을 이루는 르포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이로써 본고는 한국전쟁 속에서 창작된 작품의 시대적 특수성과 가사문학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르포가사로서의 <셋태비감>으로 그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핵심어 : 한국전쟁, 여성, 증언, 논픽션, 픽션, 장르혼종, 르포가사

1. 들어가며

본고는 한국전쟁²⁾의 체험을 소재로 한 작자미상의 가사 <셋태비감>을 구체적으로 살펴 당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란민의 입장에서 경험한 전란의 상황을 재현하여 현장과 밀착된 작자의 삶과 의식, 정서를 알아보고 한국전쟁 당시에 창작된 가사의 문학사적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셋태비감>과 관련한 작품 소개 및 선행 연구는 고순희에 의해 처음 진행되었다.³⁾ 그의 연구는 <셋태비감>의 자료를 발굴하여 학계에 최초로 소개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는 한국전쟁 중에 처한 작자의 입장에 주목하여 한국전쟁을 다룬 가사 작품 7편⁴⁾의 소재지와 창작연대, 창작자의 성별, 창작 당시 작자의 나이 등을 자세하게 밝힌 가운데, 본고의 연구 대상인 <셋태비감>의 작자는 20~23세 여성이며 1952년에 창작되어 1955년에 가필된 작품으로, 좌우갈 등의 처지에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⁵⁾ <셋태비감>의

2)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 영토에서 벌어진 전쟁을 가리켜 강대국의 대리전, 민족해방전쟁, 동족상잔의 비극 등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이를 두고 6·25전쟁, 남북전쟁, 조선전쟁, 국제전, 내전 등으로 불려왔다. 기존에 사용된 용어 '6·25전쟁'은 전쟁의 전체상과 핵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발발의 측면만 부각시키는 정치적 용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현재는 공식 문서나 학술지에서 '한국전쟁'으로 통칭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한국에서 발생하였으나 배경과 원인, 전쟁의 과정은 다분히 국제적이다.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사가 개입된 다국적 사건을 전제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전쟁'이란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6, 65~91면 참조.

3) 고순희, 『한국전쟁과 가사문학』,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4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4.

4) 구체적인 작품명으로는 <회심소>, <원한가>, <고향 떠난 회심곡>, <피란사>, <나라의 비극>, <추월감>, <셋태비감> 등이다.

5) 고순희, 위의 논문, 13~15면.

창작자가 여성이며 4음보 가사체 양식인 점에 주목하여 갈래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작품은 규방가사⁶⁾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시각은 <셋태비감>과 동일한 창작 배경에서의 경험담을 다룬 <추월감>의 갈래를 규방가사로 보고 있는 고순희의 견해에 비견되기도 한다.⁷⁾ 그는 2002년 선행연구에서 <추월감>은 한국전쟁 속에서 겪은 여성의 고통과 희생을 보여주고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의 일환을 담은 규방가사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고순희의 2014년 선행연구에서는 규방가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다양한 각도로 <셋태비감>을 조명해 보았을 때, 이 작품은 창작 시기와 시대적 배경에서 여타 규방가사와 다른 측면에서 독립적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이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에 창작된 작품들을 망라하여 ‘한국전쟁가사’ 혹은 ‘전란가사’ 등의 유형화를 할 수도 있으나 전란에 참여한 작자와 참여하지 않은 작자가 지은 한국전쟁가사와 작품의 성격이 다르며 ‘전쟁가사’의 용어 사용은 전란가사와의 연속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국전쟁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작품의 유형화를 보류한 상태에서 “한국전쟁과 가사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⁸⁾ 본고에서는 <셋태비감> 속 여성 화자뿐만 아니라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위치까지 망라하여 작품에 대한 문학적 조망과 가사 문학의 하위갈래 개념 정립에 있어 적절한 용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셋태비감>의 갈래를 다루는 데 있어 나아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작품의 문학사적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고순희는 한국전쟁을 다룬 가사의 문학사적 의미를 두고 다큐멘터리(documentary)의 기능적인

6) 학계에서는 규방가사의 명칭을 두고 내방가사, 여성가사 등 여러 견해로 나뉜다. 명칭 및 개념에 관한 연구는 백순철, 『규방가사의 전통성과 근대성』,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7, 24~27면 참조. 이 가운데 본고는 현재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권영철의 견해를 따라 ‘규방가사’로 그 명칭을 통일하기로 한다.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9~18면. 한편, 남성이 규방가사 창작에 간여한 경우도 있으며 실제 한국전쟁가사 7편 가운데 남성 창작자의 작품은 <회심스>, <나라의 비극>, <고향 떠난 회심곡> 등 3편으로, 규방가사 양성성과 명칭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여성피란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의 논의와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남성의 규방가사 공유 측면에 대한 시각은 다음의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7) 고순희, 『규방가사 <추월감> 연구: 한 여인의 피난생활과 좌우 갈등』, 『한국시가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8) 고순희, 앞의 논문, 2014, 7면.

측면으로 접근하였다.⁹⁾ <셋태비감>에 대한 그의 이러한 문학적 규명 방식은 전쟁을 배경으로 한 사실증언 형태의 서사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전쟁은 그 역사적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작품에서 보여준 전쟁 과정의 객관적 서술 방식에 대한 지적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속성으로 파악한 그의 연구에 착안하여 <셋태비감>의 논의를 시도해 볼 것이다.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기록 영상물이다. 사건과 일어난 공간, 인물 등을 중심으로 논픽션(non-fiction)에 입각한 내용 편집과 구성이 주를 이루는 방식이다. 위의 논의에서 지적한 바, <셋태비감>을 다큐멘터리적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작품 속에서 형상화된 문학적 상상력과 서정성은 배제된 채, 사실성에 입각한 협의의 범주 안에서 다큐멘터리 개념 자체는 승인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셋태비감>에서 한국전쟁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한 객관적 서사 방식은 물론이거니와 가사에서 보여주는 작자의 사유방식과 수사법의 관계 등 문학적 형상화에서 비롯되는 미학적 특성을 포괄하여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보다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학적 성격의 접근 방식은 곧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셋태비감> 및 가사문학의 장르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품은 고순희의 소개 이외에는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 없으므로 여기서는 작품의 내용을 단락별로 나누고 우선 한국전쟁의 내막을 파악해 보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작품의 전모를 살펴 한국전쟁이라는 공식적인 역사의 한 가운데서 개인, 특히 여성 피란민의 경험 기억을 되살려 한국전쟁이란 과연 어떤 현실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하여 가장 험난했던 근대사의 현장 속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셋태비감>의 문학적 가치가 드러날 것이며 또한 다른 연구의 진전과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본 논의의 주요 작품인 <셋태비감>은 필사본으로, 『역대가사문학전집』¹⁰⁾에 유일본으로 수록되어 있다. 본고는 필사본의 원전을 그대로 옮기되 가사의 4음보를 지켜 띄어쓰기를 적용하도록 하겠다.

9) 고순희, 앞의 논문, 2014, 27~28면.

10)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25권, 여강출판사, 1992, 127~132면.

II. <셋태비감>을 통해 본 화자의 시각

1. 피란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전쟁의 내막

한국전쟁의 이야기는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¹¹⁾ 이에 비하여 여성은 전쟁 경험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전쟁 속 여성의 증언은 항상 중심에서 밀려나 있거나 한국전쟁의 공식 기록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관점은 문학사에서도 통용되어 <셋태비감>의 작자이자 화자도 여성이라는 점에서 주변문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 연구 성과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 문제를 두고 사회학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을 체험한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¹²⁾ 본고에서 주목한 <셋태비감>은 이러한 사회사적 연구 동향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의 기록의 이면에 자리한 여성의 경험과 기억은 어떠한 것일까. 아래의 작품을 통하여 전쟁을 경험한 민간인 여성의 시선에서 당시의 전란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작품의 시작은 광복 이후부터 시간적 순서를 따르고 있다.

세월이 흐른다고 청춘들이 설어말고	어서어서 일어나서 우리조국 찾읍시다
한번버린 우리조국 다시오지 안으래니	우리땅 찾아보세 일본의 악독하운
제국주의 삼십육년 길이길이 안타까운	한국민족 악박서정 죽음을 다하여서
싸움에 보구하여 기름진 금수강산	모조리 빼앗겨 삼철리 이강도의
삼천만 우리민족 날뛰는 가슴마당	단근에 빨근피가 용소슴 치는차에
어대서 올려나온 난대업난 자유종이	것침업시 들러오니 숨것든 태극기를
마음껏 흔들면서 모두기뻐 뛰여것만	일년이 다뫓가서 삼팔선이 원말인고

<셋태비감>의 작자는 일제 강점기를 겪은 이로, 작품은 광복 이전의 상황과 해방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 화자는 ‘청춘들’을 지목하여 우리의 조국을 찾을 것을 하오체의 청유형 어조로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자의 일방적

11)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12면.

12) 이와 관련된 연구사 검토는 김귀옥, 『한국전쟁기 여성의 전쟁 의미와 시집살이 경험』, 『시집살이 이야기 연구』, 박이정, 2012, 208~209면 참조.

말 건넌의 방식은 일제 치하 속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현실을 부각시키고 자신이 요청한바 함께 행동할 것을 명령하는 규범 전달을 내포한다.

36년의 암흑기 동안 일본의 억압 속에서 감춰둔 분노의 감정은 날뛰는 가슴마다 끊어진 힘줄(斷筋)에서 솟아오르는 붉은 피와 같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었으며, 조국의 광복으로 인한 기쁨의 감정은 거침없이 울려 퍼지는 자유의 종소리처럼 청각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들의 정서 표현은 화자의 강렬한 역사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해방 전 태극기를 숨겨야만 했던 억압과 해방 후 태극기를 꺼내어 마음껏 흔들 수 있게 된 상황이 대조적으로 배치되어 후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기쁨이 극대화되었다. 그러나 작품의 화두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아니라 1945년 9월 2일의 상황에 있다.

<셋태비감>의 작자는 38선이 그어진 시기가 해방을 기점으로 일 년도 채 안되어 일어난 일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38선은 미국과 소련, 유엔 등 상대국이 지정한 국경선에 준하는 경계이다. 38선으로 인해 생긴 이별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화자의 감정 표현은 “원말이고”와 다음 구절에서 보여줄 “어이할고”에서 쓰인 종결어미 ‘-고’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골육상쟁 어이할고	삼천만 우리민족 접화에 노래불러
동서남북 갈라있는 원한깊흔 부모동기	일시상봉 바라든차 난대업난 인민군이
어려운 삼팔선을 제멋대로 깨트리고	용강이 달려오니 이일을 어이하면
누구나 막으리요 평화의 꿈을꾸든	남쪽의 이나라는 사변에 일어나서
남여노소 물논하고 귀중한 제목숨만	생면보수 하다보니 사랑하든 부모처자
방방곳곳 이별이라 거리마다 골목마다	울고울면 찾는드다 초목인들 무심하리
날이외도 피란이며 국범의도 사전인시대	우리가족 간곳마다 얼접여관 대말겨
밤먹이며 생벌보전하며 주기하늘의	신명께 발원하며 병업시 살아나가
초수하며	
세월이 돌고돌아 다시만날 그날까지	핏차간 축복하며 막연이 지나건만

다음은 삼팔선이 그어진 이후의 상황이다. 삼팔선이 생긴 시점부터 남북 간의 교류가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골육상쟁(骨肉相爭)으로 불안정한 국내 정세를 보여준다.¹³⁾ 화자를 포함한 삼천만 민족은 당시 삼팔선에 의한 이

별이 한시적일 것으로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의 만남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군은 기습 남침하여 ‘용같이’ 내려온다.

북한의 남침으로 남한 측 사람들이 대책 없이 피란을 떠나는 혼란한 상황은 “남녀노소 물론하고”, “사랑하든 부모처자”들 모두가 겪은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형상화된 피란 모습은 전쟁의 비참함이 화자의 개인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해석된다.

남한 측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었기에 군사들이 턱없이 부족하여 나라의 평범한 이들(國凡)도 나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가운데, 화자와 가족들은 생존을 위한 피란을 선택한다. 화자와 가족 일행이 가는 곳곳마다 임시 수용소로 제공된 여관은 문지방과 문빗장(閹盾)을 넘어서 기다리는 줄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¹⁴⁾ 야외에서 임시 자리한 피란민이 전쟁 중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늘을 향해 닥쳐올 운수를 미리 점쳐보고 기도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화자와 가족들은 더 이상 함께 피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만날 기약과 함께 흩어진다.

인민군은 힘을내어 삼육도선을 넘어	요란한 총소리는 천지를 울리는데
씩씩한 유엔군과 강철같은 우리국군	몸과마음 다바치며 조국을 위하여서
고생을 근복하여 끝까지 싸워서니	하나님의 돌보았나 대륙기운 바다든가
백두산의 왕기런가 금강산에 운기런가	어이하여 다시왔소

다음은 한국전쟁 가운데 가장 긴박하고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전과 1·4후퇴의 모습이다. 위의 인용문은 인민군이 36도선¹⁵⁾을 넘어 진격하는 부분이다.

13)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38도선 상에서 남한과 북한이 수차례 군사적으로 충돌하였다. 38도선 접경지에서는 약탈, 납치, 보복 등이 발생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경쟁심과 적대감이 가열되고 있었으며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남북 사이의 무력 충돌이 빈번히 발생했다. 1950년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49년까지도 이어진 크고 작은 교전의 사실을 작자는 알고 있었기에 이를 골육상쟁(骨肉相爭)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광복과 분단 직전의 구체적인 사회 정치 상황은 나종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전쟁』, 양서각, 2018, 13~31면 참조.

14) 전쟁 당시에 행정력이 미치는 공간이면 어디든 피란민 수용소로 지정됐다. 하지만 밀려드는 피란민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임시 수용소로 여관을 사용했는데, 작자와 그의 가족도 피란으로 이곳저곳 여관을 이용하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충청도와 경상도를 넘어서까지 내려온 인민군을 방어하기 위해 남한에서는 ‘씩씩한 유엔군’과 함께 대항한다. 유엔군의 등장은 인천상륙작전 개시를 의미한다.

인천상륙 작전과 낙동강 방어선에서 실시한 반격작전에 성공한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을 수복하는데 13일이 걸렸다. 9월 28일 수복 후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을 지난다. 10월 7일 맥아더는 유엔군에 38선 돌파 명령을 내렸다. 전쟁이 확대된 것이다. 7월과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다.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9일 평양에 진입해 다음 날 장악했고, 24일 청천강을 건넜다. 압록강과 두만강이 저 너머 보이는 지점까지 진격했다.¹⁵⁾

유엔군과 남한군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낙동강 방어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한반도의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으나 ‘하나님이 돌보았는지’ 바다와 같은 대륙의 기운을 몰고 온 중국군의 공세는 ‘백두산과 금강산의 기운’으로 12월 30일 다시 대대적인 공세를 퍼 평택-제천 선까지 내려왔다. 중국의 개입으로 1차~3차의 공세가 지속되면서 곧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지속되었다.

한국전쟁의 구체적인 전개에 대한 작자의 증언은 여기까지다. 전쟁 당시 피란 상황에 대한 여성 구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은 ‘여름난리’, ‘6월달 난리’, ‘육이오’, 중공군 개입된 당시를 ‘겨울난리’, ‘중국 사람 나오는 난리’, ‘동지달 난리’, ‘동지란’로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다.¹⁷⁾ <셋태비감>의 작품 구조도 한국전쟁 발발과 중공군 개입에 의한 1·4후퇴까지 두 부분으로 나뉘는 점에서 여성 구술자들과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셋태비감>의 흥미로운 점은 작품 속 화자가 앞선 구술자들의 비공식적인 용어 사용에 의한 증언과는 달리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전쟁 과정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셋태비감>이 전쟁을 경험한 민간인의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유

15) 북위 36도선은 금강 하구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북부, 익산시, 완주군 북부, 무주군 북부, 경상북도 김천시 남부, 성주군 북부, 칠곡군, 영천시, 경주시 북부, 포항시를 관통하는 경계선이다.

16) 서중석·김덕련,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오월의봄, 2015, 74~75면.

17) 김귀옥은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친 만 2년간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한국전쟁 중 시집살이를 겪은 68명 여성들의 구술 자료를 수집하여 직접적으로 한국전쟁과 관련 구술을 한 19명의 명단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김귀옥, 앞의 책, 220~222면.

의미한 사료임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셋태비감>의 작자이자 화자는 한국전쟁 발발 시점부터 전쟁 중 미군과 중공군의 개입으로 상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장면을 세세하게 그려내었다. 작자가 일제 치하의 36년, 해방 이후 일 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그어진 38도선, 1·4후퇴의 상황을 36도선 등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요컨대 이 작품의 전반부는 전쟁 현실을 충실히 재현하여 공식적인 역사 서술에 의존할 수 있는 논픽션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고순희가 지적한 바 “한국전쟁 당시 남한 거주 한국인들이 한국전쟁을 직면하여 가진 입장과 생생한 삶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다큐멘터리로 기능한다는 문학사적 의미”¹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사실 전달에만 충실한 <셋태비감>인지 다음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2. 화자의 투옥 생활과 무의식의 세계

작자가 한국전쟁에서 겪은 마지막 기억은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중공군 개입이다. 공식적인 역사 서술이 작품의 중심이 되어 한국전쟁의 내막을 여성 피란민의 시선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셋태비감>의 후반부에서는 화자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단서들이 곳곳에 등장하며 개인의 경험과 정서 표현이 주를 이룬다. 특히 여기서는 여성 화자가 겪은 가장 큰 고난의 요소들과 그 상황들이 전개된다. 그 속에서 화자의 삶과 생각은 어떠했는지 다음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랑하던 부모형제 난행을 보낸후에
남쪽의 먼하늘을 막막히 바라볼재
심중에 뛰는맥박 자유업시 더욱뛰내
그리든 고향산천 반가히 다시와서
태산이 평지갓고 일만근심 다잇는듯
들벌판에 오곡들은 나날이 살지면서
면산의 초목들은 색옷을 갈라입고
칩칩히 흐른유수 바다를 향하였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주야도 무름쓰고
말못하는 가슴속은 불이나며 제가대고
가족이 헤어진지 이삼세월 지난후에
사면에 지난역사 세세히 설화하니
무슨근심 또잇서라 더울때는 언제런가
서늘한 바람결에 향기를 풀어내고
춘풍의 나부끼니 가을이 안인가요
밭고밭근 저일월은 서산에 기우리고

18) 고순희, 앞의 논문, 2014, 27면.

씨늘한 반공중의 벗업시 흘러가는 외기력기 가는곳도 남쪽의 안이런가
 가지가지 모든곳이 행하는곳 있건마는 가련한 나의몸은 어대로 향하런가

화자는 피란길에 오르는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지게 된다. 남쪽의 먼 하늘만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홀로 남게 된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피란을 가지 못한 여러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남침 이후 어떤 지지도 없던 당국의 문제로 인한 경우,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 다리가 폭파되면서 피란을 가지 못한 경우, 자신만 남고 다른 가족들만 피란 간 경우 등이 그것이다. 작자는 그렇게 가족과 헤어진 지 2~3년이 지난 후 그리워하던 고향에 다시 오게 되어 전쟁 중 지난 일들을 자세히 풀어낸다.

여기서는 고향에 돌아온 안도감과 기쁨이 계절적 배경으로 형상화되었다. <셋태비감>의 문학적 가치는 여기서 드러난다. 그의 평안한 마음은 태산이 평지와 같아졌으며 들판에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곡식들이 익어가고 초목들이 물들고 있는 가을로 표현되었다.

“가을이 안인가요”에서 사용된 용언의 종결형은 여성들의 발화에서 사용되는 감탄형 어미이다. 뿐만 아니라 “가련한 나의 몸”에서 보여주는 신체의 형상화는 <셋태비감>의 작자이자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표지이다. 이처럼 화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여성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대목은 아래에서도 포착된다.

조각달의 빗진밤에 철업시 잘못함을
 뛰는피가 진정치 못 사변에 여러사람 있건마는
 출생후 첨가는 지서에 들어가니
 그언간 지난일을 세세히 설명하니
 세월이 흘러야 찬바람이 불어오니
 공상인들 업스리요 십구세의 어린갓친몸이 대고보니
 누구에게 말하리요 철업고 어린가슴
 어대로 다가고서 나의게만 맞기는고
 뛰는가슴 진정하며 사찰서 형사보고
 하르잇틀 지나든일 가슴오주 타오리요
 뺏것을 오리는대 잠인들 쉽게오랴
 의로워 쏜눈물 소낙비의 비하리요

화자는 전쟁 중 자신의 행위가 ‘철없는’ 어린 시절에 행한 ‘잘못’임을 강조한다. ‘가녀린 19세’ 여성의 입장에서 일어난 그 행위는 생존본능에 의하여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다. 그러나 화자가 저지른 실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작품 속에 보이지 않는다. 화자의 선택에 의해 벌어진 행위의 과정 및 배경이 전쟁 중이었다는 사실을 대입해 본다면 당시 화자의 심리는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작품에서 드러나지 않은 그 행위와 내용은 인지부조화가 일어난 화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검열과 의도적 숨김으로 해석된다.

결국 화자는 사리분별도 잘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실수로 난생처음 ‘지서’에 들어간다. 화자는 자신이 행한 일에 있어 결백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형사에게 “그연간 지난일을 세세히 설명하”였으나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된다. 전쟁 중 피란을 가지 못한 이들은 잔류되어 고생하고 굶주리면서 어쩔 수 없이 부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자마자 피란을 가지 못하고 남은 이들을 부역자로 몰아세운 상황 속에서 작자도 이 가운데 한 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¹⁹⁾

1950년 6월 28일 긴급 명령 제1호 비상조치령이 단행되면서 부역자들은 엄벌에 처해진다. 이때 부역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작자는 죽음만은 면하였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학살이 8월 중순까지 지속되었으나 작품 속에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당시 부역자로 몰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부역자로 죽은 가족도 그렇고 감옥소에서 고생하는 부역자와 그 가족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작자도 자신의 실수로 돌리며 부역 행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며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도언제 집에가서 평화로운 꿈을꾸나	쓸대업난 헛된공상 날개타고 집에가리
나의밤은 별빛치요 야월삼경 깊흐구나	짜늘한 바람속에 달빛치 칠타치니
어이하면 한경잘까 모질고 강한 것이	사람받게 또잇난가 안개어린 가슴우의
두손을 고이언고 어름갓치 찬마루에	무슨잠이 들어오리 찬바람 부는 속의
백설이 날이건만 나의 꿈은 잊지하여	만물에 생중하는 즐거운 봄철이라

19) 고순희는 전쟁 당시 인민군과 국군의 교차 점령지에서 부역에 협조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이 많았던 사실을 근거로, <셋태비감>의 작자는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자였음을 주장했다. 고순희, 앞의 논문, 2014, 24면.

백설의 싸인산은 옥색을 변해지고	장기백 농부들의 소꿉는 소리와
모진잠을 깨고보니 또다시 슬픈생각	일월이 부광하니 오늘날이나 석방될가
내일이나 석방될가 매일갓치 기다리며	지나온 저어연간의 달이 넘어 집의오나
가지가지 모든 것이 우울깊은 나의심경	어이하여 진정할고 울어바도 웃어바도
한엽시 비○하니 ²⁰ 십구연 지난일이	인간고회 몇회이고 꽃갓치 피는얼골
장미갓치 깃흔향기 봄이갈가 두려우나	참지못할 세월이라 한숨이 흘러나고

화자의 발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사방이 벽으로 막혀 신체적 구속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화자는 난생 처음 겪게 된 철장 안의 생활로 인해 억울하게 갇힌 분노와 원망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폐쇄 공간에 격리되어 속박된 육체에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공상의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추위를 견디지 못해 금방 잠에서 깨어나는 열악한 상황이다. 화자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세계인 꿈을 이용하여 한정된 자유를 간접적으로 누리고자 했다.

꿈은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지는 공간이다. 화자의 무의식의 세계는 현실세계의 겨울과는 정반대의 계절인 봄이다. 눈으로 하얗게 덮인 산이 푸르게 변하는 과정은 일상과 다를 바 없지만 화자가 처한 상황에서는 독특한 세계로 나타난다. 물론 모두 허구이다. 이와 같은 허구적 상상은 감옥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절망적 체념 상태 속에 처한 처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욕망의 화자의 무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즉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현실과는 다른 세계가 화자의 꿈에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는 꿈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현실세계로 회귀하는 과정이 청각적 장치로 형상화되었다. 화자가 꿈속에서 들은 “장기백 농부들의 소꿉는 소리”는 화자가 수면 중에 외부의 감각에 자극을 받아 외부의 소음이 그에 상응하는 꿈의 세계로 나타났다.²¹⁾ 외부의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화자가

20) 고순희는 “힘업시 ○○하니”로 보고 있다. 고순희, 앞의 논문, 2014, 12면. 그러나 이 구절의 원전을 살펴본 바 “한업시 비○하니”로 확인된다. 논란이 있는 필사 부분만 <그림 1>과 같이 자료 인용으로 가지고 왔다. 오른쪽 필사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힘’은 ‘한’으로 명확하게 필사되어 있으며 종결부의 “○○하니” 가운데 ‘비’도 뚜렷하게 식별이 가능하다. 원전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 나머지 글자는 초성을 제외한 중성 ‘ㅇ’와 중성 ‘ㄴ’으로 확인된다. 초성도 ‘ㄱ’으로 보이나 이는 본고의 추측에 가까워 별도로 기입하지 않고 ○로 처리하였다.



<그림 1>

21) 수면 중 인간의 정신은 외부세계와 결합되어 있는데, 수면 중의 감각 자극이 충분히 꿈의

처한 시간과 공간을 기반으로 추론해 본다면 교도관들이 잠든 수형자들을 깨우는 소리일 것이다.

화자의 꿈은 그가 처한 현실 공간 속에서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불안한 심리를 반증하고 있다. 마치 반수면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같이 이성에 의한 어떠한 감시도 받지 않으며 심미적이거나 윤리적인 어떠한 관심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과 욕망에 충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유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시적 이미지들이 봄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러나 꽃과 나비가 어울리는 풍경은 오히려 화자의 절망을 암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곧 꿈은 깨지고 “우울깊은”, “한없이 비통”, “인간고화”, “참지못할 세월” 등 하강의 이미지를 그리는 단어들로 연이어 형상화되었다.

작품의 후반부는 고통스러운 옥살이의 상황을 부정하고 꿈을 통해 도피하는 화자의 상상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화자의 상상력은 ‘시적인 영역’ 안에서 가사의 문학적 속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셋태비감>에서 보여준 봄의 풍경과 상상력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기제로서 표현된 것이다. 감옥 안에서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후반부의 모습은 상상력의 과잉이라기보다 그녀가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무의식 세계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면 작자가 작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신이 여성임을 작품 속에서 드러내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여성으로서의 말하기를 여과 없이 표출해 내었다는 점인데, 이는 <셋태비감>이 규방가사로서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화자의 삶의 의미와 염원

<셋태비감>의 마지막은 화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화자는 한국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란을 다니다가 가족들과 헤어지고, 부역 행위로 옥살이를 겪게 된다. 작품의 전반적인 상황이

출처가 될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견해에 따르면다면 작품 속 화자는 시끄러운 소음을 듣고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양순 역, 『정신분석 입문/꿈의 해석』, 동서문화사, 2007, 468~476면 참고.

하강의 분위기였다면 결말에서 보여주는 상승의 분위기는 고난의 현실을 자신의 힘으로 관통해 나가고자 하는 여성의 힘을 그대로 보여준다. <셋태비감>의 결말은 규방가사 속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삶과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옥살이 중에는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 출소 이후에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래를 통해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은 다시와서 이십세월 맛이한이	세사엄 세출발이 어이하여 지나갈가
취봉이 몽롱하며 나의희망 무엇인고	가련한 나의 인생 인간고회 멀이떠나
산높고 물맑은곳 고요이 차자가서	이세상 모든 영화 분노갓치 다버리고
청산고흔 대는것이 나의평화 아니런가	그러치 안이하며 이세상에 다시사라
부귀영화 누리면서 창창한 나의희망	영광을 찾을 것이 말업는 청산들아
고궁을 너이리라 나의게 이르켜자	새벽의 희망인가 황금의 앞길인가
미래를 르르고새 사라가는 우리인생	파도치는 이세상의 어이하여 살아갈가
누구보다 가련하고 의처로운 우리동지	어이하여 살아가나 나년오주 출가외인
나을생각 및지마라 가슴오주 저리고나	세월도 몸슬어라 꽃업는 이세상이
한하이슬 대있다 본심으로 사라보자	고인갓치 자라나서 빛나는 나의앞길
멀이서 등이 빛치고 있스리라	꽃위에 날아드는 별과나비 춤추는 듯
나물먹고 물마시며 생면보전 하여보자	고인갓치 자라나서 빛나는 나의앞길
멀이서나 등대불이 빛치고 있스리라	꽃위에 날아드는 별과나비 춤추는 듯

화자는 20세가 되어 옥살이를 마치고 풀려난다. 전쟁으로 몸과 마음이 황폐화된 화자는 현실에 대한 환멸로 인하여 인적이 드문 산 속으로 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환멸은 곧 좌절로 나타나지 않고 다시 한 번 살아보고자 하는 다짐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화자가 꿈꾸는 새로운 삶의 시작은 ‘새벽의 희망’과 ‘황금의 앞길’로 비유되었다.

<셋태비감>은 화자의 개인적인 체험을 담고 있지만 한국전쟁을 경험한 모든 여성의 체험담이기도 하다.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전쟁에서 엄청난 억압과 공포를 경험한 “누구보다 가련하고 의처로운 우리동지”를 상정하여 화자를 비롯한 청자를 합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출가외인(出嫁外人)한 여성의 입장에서 서서 가슴이 아프지만 “본심으로 사라보자”고 해라체의 청유법을 통하여 요청한다. 화자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자들에게 제안하는 삶의 모습은

“나물먹고 물마시며 생면보전”하는 평범한 인생이다. 이처럼 집단적 동류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 속 화자는 규방가사의 발화양식을 따르고 있다.

몽실몽실 자라나서 사람다운 사람대기	언니는 축원한다 부모님을 원망하리
세월을 한탄하리 수원구그 할그인가	원망말고 사라보자 고생을 회복삼아
병없이 자라거라 앞모보신 아버지와	철업은 어린동생 귀여이 살여주소
하늘에 기도하며 신명게 발원하며	만수무광 하옵기를 길이길이 비읍니다
어느듯 유수세월 백마가 달려가서	과지사과 대엇건만 사변에 가신모친
어느곳이 평화로워 소식조차 불통한이	어대락고 차차갈고 험악한 산이막혀
넘지못해 못오신가 푸른물이 가로막혀	건너지못해 못오신가 슬푸다 우리엄마
어이하어 못오신고 연연서 오는봄은	금년다시 차자오니 말업는 초목에는
새움이 만발한이 별과나비 춤추는 곳	

<셋태비감>의 마지막은 작자의 염원이 절실하게 표출되었다. 여기서는 특히 앞서 등장하지 않았던 화자의 개인 신상 정보가 자세히 기술되고 있다. 화자의 가족은 어린 동생과 앓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4인이다.

고순희는 <셋태비감>의 창작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950년 전쟁이 발발하고 피란 중 가족이 헤어졌으나 “이삼세월” 지난 1951~52년에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과 상봉하여 감옥에 갇힌 1952~53년 봄까지 일차적 창작이 이루어지고 위의 마지막 단락이 전쟁이 끝나고 출가외인이 된 작자가 1955년에 작품을 마무리 한 것으로 보고 있다.²²⁾ 그가 주장한 창작의 마무리가 1955년인 데에 그 구체적인 근거를 “어느듯 유수세월 백마가 달려가서”에 두고 있다. 여기서 그는 “백마”를 ‘백마년’인 1954년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1954년은 갑오년(甲午年)인 청말때의 해이며 위의 구절은 단지 ‘인생은 백구과극(白駒過隙)’임을 나타내기 위한 구절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1955년을 가필된 단서로 보기 어렵다.

작품의 마지막은 인생이 백마가 달리는 것을 문틈으로 내다보는 것과 같이 삽시간에 지나가 과거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화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담고 있다. 화자는 전쟁의 정신적 외상에 매몰되지 않고 진지한 자기 성찰과 극복을 위한 자생적 욕구와 주체성을 강조한다. 이는 수동적이고 타자적인

22) 고순희, 앞의 논문, 2014, 12면.

태도에서 벗어난 여성의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희생을 감내하고 여성이자 딸로서, 아내로서 가져야 할 화자의 고단함과 의지를 함축하고 있는 규방가사의 면모를 담고 있다.

요컨대 <셋태비감>의 결말에서 나타난 생존욕구가 투영된 화자의 모습은 여성으로서의 존재론적 성찰과 가족의 기원을 통하여 자발적인 자기 회복을 보여준다. 규방가사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억압적 환경이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전통시대라면 <셋태비감>은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셋태비감>에서 보여주는 규방가사 양식의 보편성과 한국전쟁 상황에 창작된 배경의 특수성을 아우르기 위한 일환으로 작품의 문학적 성격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 한국전쟁의 특수성과 <셋태비감>의 문학사적 의의

지금까지 살펴본 <셋태비감>은 한국전쟁에서 여성이 겪은 체험담을 4음보 가사체 양식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여성이 창작의 주체로 활동한 규방가사의 장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규방가사는 전통사회의 지배이념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과 극복을 담고 있다. 그런데 <셋태비감>은 과거 전통사회의 억압이 전쟁 상황에서의 억압으로 그 창작 배경이 치환되어 본래 규방가사의 속성과 거리가 멀어졌다.

한편 박혜숙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을 칭하는 개념용어로 ‘자기서사(自己敍事)’의 개념 용어를 제안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자기서사’ 양식은 가사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용어로, 여기서는 규방가사도 자기서사의 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²³⁾ 남성과 여성을 비롯한 전통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용어의 대중성을 지니는 점에서 <셋태비감>을 자기서사 양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규방가사의 ‘자기서사’ 양식은 신·구여성의 이항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구여성의 주변적, 비제

23) 박혜숙, 『한국 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 204~207면.

도권 문학, 비주류적 문학권에서 벗어나 탈계몽적이고 페미니스트적인, 탈식민주의적 학문 경향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개념화된 ‘자기서사’이다.²⁴⁾ 하지만 <셋태비감>의 여성 화자는 여성의 신체적 나약함을 강조하고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에서 자기서사에서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탈속의 면모와 여성 해방의 관점을 보이지 않는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시기가 현대임에는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작품 속 화자가 신여성의 탈속적인 측면을 보여주고자 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셋태비감>을 놓고 자기서사적 작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태비감>의 초점이 한국전쟁과 그 속에서 전쟁을 겪은 피란민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쟁을 소재로 한 가사의 유형에는 ‘군담가사’가 있으나 전쟁에 직접 참여한 이들이 창작한 것들로 작자와 화자의 시선은 전쟁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셋태비감>은 여성 작자이자 여성 화자의 기억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글쓰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셋태비감>을 대하는 독자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피란을 다닌 민간인의 시선으로 작품을 읽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셋태비감>의 화자는 전쟁 속 피란민 여성으로, 이들은 역사서술에서 소외된 목소리이다.

그렇다면 박혜숙의 ‘자기서사’로 돌아가서 “화자가 자신의 체험을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부가설명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한다. <셋태비감>의 작자는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자 관찰자로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전쟁 발발, 1·4후퇴, 중공군의 개입 등을 세세하게 서술하였다. 작품 도입부의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에 입각한 ‘논픽션’에 가깝다. 특히 작자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사실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전쟁 과정에 대한 복원이 가능하였다. 논픽션이라는 작품의 특성은 다큐멘터리적 시각으로 접근하기에 적격인 듯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셋태비감>의 후반부에 있다.

광복 이후 1·4후퇴까지의 기억에 머문 화자는 부역 행위로 인해 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는 감옥이라는 억압의 공간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욕구와 욕망을 꿈을 통한 자기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즉, 자신의 고유한 체험이 보편적

24) 박혜숙, 위의 책, 113~115면.

공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문학적 상상력으로 재현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셋태비감> 작품의 전체를 살핀 결과, 전반부의 논픽션과 후반부의 픽션의 장르 혼종 현상을 보이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셋태비감>의 문학 갈래가 가사라는 점에서 소수의 엘리트층이 아닌 다수의 대중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문학적 기능을 수행했다. <셋태비감>은 작자를 비롯한 화자, 갈래의 성격 3박자 모두 소외된 목소리, 주변부의 시선 등 모든 것이 중심부에서 밀려난 아래로부터의 창작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적 담론자에 진입하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발화를 담은 매개라는 점에서 르포문학”²⁵⁾의 개념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

현장에서의 생생한 증언,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대한 청취는 물론 화자의 꿈을 통하여 발현된 상상력은 문학적 기능의 수행까지 함께 하고 있다. 작품 속 화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현실의 픽션한 증언이 한국전쟁의 피란길을 구체적으로 복원하였다. 르포문학의 특징에서 나아가 가사문학양식을 취하여 르포문학적 특성과 가사문학 양식의 특성을 모두 담고 있는 <셋태비감>의 유형화는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다룬 문학 갈래는 기억에 의존하여 집단 기억의 양산이 위로부터의 요구로 이루어졌으나 한국전쟁가사는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증언자의 체험담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가치를 부각시키고 4음보의 가사체 양식임을 함께 아우르기 위한 장르 유형화의 일환으로 르포문학의 가사화, 르포적 양식의 가사의 <셋태비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전쟁의 사실에 입각한 논픽션과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피란민의 이야기를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셋태비감>은 ‘르포문학’의 범주와 그 맥을 함께 한다. 르포문학은 다시 르포, 논픽션, 수기, 보고, 탐사취재, 증언구술, 생활글 등을 비롯한 매우 다양한 하위 장르들이 포괄되어 있어 보다 섬세한 장르적 접근이 필요하다. 르포문학은 온전히 논픽션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취재와 변별되는 문학적 특성을 가졌다.

<셋태비감>에서 보여주는 르포문학 장르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우선

25) 장성규, 『르포문학의 장르 개념 정립을 위한 질문들』, 『작가들』 통권70호, 인천작가회의, 2019, 135면.

<셋태비감>의 서사는 한국전쟁 가운데 피란민으로 생활하며 체험한 사건들과 정서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전쟁 과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사실은 그가 원치 않은 피란과 부역으로 인해 맺힌 한탄과 비감을 토로해 내기 위한 감정 토로로 작품은 결론을 맺는다. 결국 이 글에서 살펴본 <셋태비감>은 전쟁 발발부터 가장 치열했던 전투까지 자신의 고유한 체험을 토대로 꺾진하게 그려내고 있어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사실성과 규방가사의 문학성이 혼종을 이룬 현대르포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IV. 나가며

지금까지 <셋태비감>에 대한 논의는 작품의 대략적인 소개에만 머물렀을 뿐 작품 자체를 고찰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또한 이 작품을 주목했던 본고의 주요한 시선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작자의 측면도 작품의 갈래를 지칭하는 데에 있어서 전란가사 혹은 전쟁가사의 유형화에 어긋남을 지적한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그것이 문제의식으로까지 발전하여 해답을 내리지는 못했다. 본고에서는 <셋태비감>에서 한국전쟁의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전달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작자의 입장에서 피란민의 체험이 작품 속에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 되었는가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한국전쟁을 경험한 화자의 생생한 증언과 고유한 체험이 혼종을 이루는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학적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집중하였다.

<셋태비감> 작품 전체를 조망한 결과, 작품의 도입부는 36년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38선이 그어진 뒤 이어진 한국전쟁의 발발, 36도선의 경계선을 넘어선 중공군의 개입 등 전쟁 당시의 상황이 '사실'에 입각한 생생한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작품 속에 드러난 구체적인 전쟁 용어를 통하여 화자가 경험한 전쟁의 기억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근현대사적인 질문보다는 그 속에서 여성 피란민 화자의 육체적·심리적 고통이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는가에 대한 물음과 그 해답을 밝혀야지만 <셋태비감>의 갈래와 문학사적 의의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작품 해석 가운데 화자가 한국전쟁 속에서 여성 피란민으로서 겪은 삶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에 주목했다. 요컨대 화자는 부역행위에 대한 사실을 실수로 돌림으로써 감추었으며 옥살이 중에는 비참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꿈의 세계로 보여주었다. 더불어 작품의 주조를 이루는 화자의 육체적·심적 고통이 강조됨을 확인하였다. 감옥살이의 억울함, 슬픔의 감정들은 꿈의 세계를 통해 따뜻한 봄날로 환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본고는 화자가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왜곡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옥살이를 마친 화자가 외로움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제 2의 인생을 기원하는 작품의 결말은 여성이 겪은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작자미상의 여성 피란민 화자의 경험담을 다룬 <셋태비감>은 한국전쟁의 논픽션을 가사 양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의 사실성과 가사에서 나타나는 문학적 형상성이 결합된 르포문학의 속성을 갖춘 작품이다.

한국전쟁 속 여성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본고에서 살펴본 <셋태비감>도 전쟁에서 여성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초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연구에 가치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르포문학으로서의 장르적 속성과 그 조건을 충족한 <셋태비감>을 통하여 ‘르포가사’라는 새로운 갈래 명칭을 시도하였다. 여기서는 단일 작품만을 가지고 문학적 조건을 적용해 보았기 때문에 그 설득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다소 거칠게나마 르포가사라 명명하였으나 다음의 논의에서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피란민 작자의 가사작품들을 통하여 르포가사의 장르 개념에 대한 좀 더 섬세한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25권, 여강출판사, 1992.

2. 단행본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6.

나중남, 『군사작전을 통해 본 6·25전쟁』, 양서각, 2018.

박혜숙, 『한국 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

백순철, 『규방가사의 전통성과 근대성』,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7.

서중석·김덕련,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오월의봄, 2015.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양순 역, 『정신분석 입문/꿈의 해석』, 동서문화사, 2007.

3. 논문

고순희, 「규방가사 <추월감> 연구: 한 여인의 피난생활과 좌우 갈등」, 『한국시가문학 연구』 제1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21~48면.

_____, 「한국전쟁과 가사문학」, 『한국고시가문화연구』 제34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5~32면.

김귀옥, 「한국전쟁기 여성의 전쟁 의미와 시집살이 경험」, 『시집살이 이야기 연구』, 박이정, 2012, 205~238면.

장성규, 「르포문학의 장르 개념 정립을 위한 질문들」, 『작가들』 통권70호, 인천작가회의, 2019, 135~146면.

Korean War Experience and Female Refugees's Perspective in *Settaebigam*

Lee, Hye-gyoung

Settaebigam is a manuscript gasa work expressed in a four-verse lyric style based on a story about Korean War situations that she experienced from the perspective of a refugee along with her own story.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the author's life and ideas adhered to the field in detail in order to establish a new categorization of gasa by reviewing the literary characteristic of gasa created during Korean War.

This study covers the theory of the work by categorize the contents into three paragraphs as the introduction of *Settaebigam*, which hasn't been discussed so far o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the work. The introduction part of the work arranges the details of Korean War in sequence and reproduces the reality of those days from the time after the liberation to the outbreak of the war and the Great Naktong Offensive. This is how the restoration of reality based on the official historical description was made possible. In the middle part, the author's unfair emotion and distress due to prison life by treachery during the war are viewed, along with her efforts to forget her adversity in the unconscious world through dream. The work ends with her wish for the future in the desolate reality after being released from 1 year of imprisonment.

Settaebigam embodies the historic facts derived from the author's war experience and the escapism to overcome her own personal adversity through the literary imagination. It shares the characteristic of report literature with non-fiction and fiction mixed.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for new categorization of gasa literature as a report gasa by highlight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period in the work created during the situation of Korean War.

keywords: Korean War, female, testimony, Non-fiction, fiction, genre mixed, report gasa.

접수일자: 2020. 3. 31.

심사기간: 2020. 4. 1.~2020. 5. 10.

게재결정: 2020. 5. 10.